

『창세기 4회: 창세기 3:8-24』

1. 하나님의 질문과 아담 부부의 변명(3:8-13)

아담 부부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몸을 가립니다. 치마보다는 옷이라는 번역이 낫습니다.¹⁾ 옷으로 자신의 존재를 가린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죄가 인간에게 최초로 행하는 일은 ‘존재’로는 사랑받을 수 없으니 ‘옷’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취, 돈, 명예, 권력, 학벌, 외모, 몸매 등으로 자신의 옷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 노력의 근저에는 ‘존재’만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최초로 행하는 일은 ‘존재’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니 ‘옷’을 마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의 존재 자체로 너는 사랑 받기에 충분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셨습니다. 아담 부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니셨다’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의미합니다.²⁾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 부부와 교제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동산을 거시니는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도망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서술합니다.³⁾⁴⁾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지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 한다는 자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춘다면, 죄의 문제는 해당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늘 귀하게 여깁시다.

1)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206.

2)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11: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6), 권대영 역, 『창세기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290.

3)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4)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Michigan: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205.

9절에서 하나님은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은 질책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잘못된 이들이 자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줍니다.⁵⁾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궁색하게 변명합니다. 아담은 일을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나아가 하와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비난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하와를 어려움의 근원으로 취급합니다.⁶⁾ 하와에게서도 회개의 징후를 찾기 어렵지만, 아담보다는 나은 태도를 보입니다.⁷⁾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을 지적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상황을 방패로 삼아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⁸⁾ 범죄자는 합리화를 통해 희생자가 되고, 아담의 각본에서 하나님과 하와는 실질적인 선동자가 됩니다.⁹⁾ 이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아담의 변명을 거부하십니다.

2. 하나님의 심판(3:14-21)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들으신 하나님은 뱀-하와-아담 순서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먼저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실제 자연에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라”라는 명령으로 뱀이 경험해야 하는 굴욕과 복종을 표현하고자 의도하셨습니다.¹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에” 전하는 충격은 치명적이지만, 뱀이 “발뒷꿈치”에 전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¹¹⁾ 이 구

5) Kenneth Mathews, 『창세기 1』, 292.

6) John H. Sailhamer,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206.

7)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09.

8)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박영호 역, 『창세기 1-15』(서울: 솔로몬, 2006), 198.

9)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09.

1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12.

11) Kenneth Mathews, 『창세기 1』, 299.

절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남깁니다. 루터는 ‘여자의 후손’을 인류와 그리스도라고 이해했고, 칼빈은 교회라고 이해했습니다.¹²⁾ 우리는 일차적으로는 예수님, 이차적으로는 교회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고통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는 것, 배우자를 향해 헌신하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괴로움을 경험할 때, 사탄에게 매우 치명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여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여자는 자녀 출산이라는 축복의 순간에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생은 뱀이 패배하고 축복이 회복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타락한 사건만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임박한 기쁨, 해방 역시 떠올리게 합니다.¹³⁾ 본래 여자와 남자는 결혼 생활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각자 지배력을 놓고 싸우는 전쟁터로 변모합니다.¹⁴⁾

17-18절에서 하나님은 남자를 심판하십니다. 남자는 평생 동안 고된 노동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본래 일 자체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일은 형벌으로 전락합니다.¹⁵⁾

이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일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밟으셨으며,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며,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를 경험하고, 가정이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일을 할 때 힘겨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01.

13) John H. Sailhamer,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209-210.

14)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05.

15) Gordon J. Wenham, 『창세기 1-15』, 206.

20절에서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하와를 통해 뱀을 물리칠 후손이 오리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¹⁶⁾ 아담은 비록 죄에 넘어졌으나, 하나님을 다시 신뢰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7절의 무화과나무 잎과 대조됩니다. 무화과나무 옷은 스스로를 덮으려는 것이지만, 가죽옷은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 죄책감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부에서 오는 구원이 필요합니다.¹⁷⁾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성경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선행을 쌓는 행동은 무화과나무 옷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믿어야만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해방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가죽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 남자와 여자의 추방(3:22-24)

아담 부부는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¹⁸⁾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길 꺼려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애씁니다. 늘 자신을 더 낮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압박합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더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쓰라고 권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모가 되기를 권합니다. 뛰어난 학업 성취를 이루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권합니다. 왜일까요?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이고,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 그 자체로 주위 사람에게 참으로 큰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16)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09.

17)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24.

18) John H. Sailhamer,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213.

에덴에서의 추방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죽음,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방을 택했고,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¹⁹⁾ 모든 인간은 죄를 택했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에덴과 성막의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생명 나무는 ‘그룹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언약궤 안에서 ‘그룹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²⁰⁾ 하나님은 사람이 동쪽 입구를 통해서만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에덴 동산 동쪽에 두셨습니다. 이 모습은 성막/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 문에 있었던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 주둔하고, 금지된 성소에 침입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민 1:51, 53). 에덴 동쪽의 그룹들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²¹⁾ 하나님의 역사는 에덴-성막-성전-교회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추방 이후 사람은 에덴의 나무를 통해 생명을 얻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과 달리 무죄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가는 수단과 한계가 죄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에서 생명나무는 믿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속하는 과일을 누릴 수 있는 때는 오직 이 때뿐입니다.²²⁾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니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물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고, 가인은 여호와의 임재를 피해 동쪽으로 갔고(4:14), 바벨론도 동쪽으로 가다가 발견했고

19)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12.

20) John H. Sailhamer,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214.

21)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227.

22) Kenneth Mathews, 『창세기 1』, 314.

(11:2),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을 때도 동쪽이었습니다(13).

※ 성경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뜻은 “너는 네가 원래 창조될 때에 의도되었던 삶에서 분리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죽음은 생명에서 떠나 혼돈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창조를 거부하는 것으로, 창조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²³⁾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아를 예배하고, 생명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에서 벗어나서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23) Gray Edward Schnittjer, *The Torah Story*(Michigan: Zondervan, 2006), 박철현 역, 『토라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99-100.